

## “끝내줬다” 감동·환희의 평화 올림픽



“영미~은메달이야” 25일 강원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올림픽 컬링 여자 결승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이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정, 김경애, 김선영, 김영미, 김초희. /연합뉴스

### 대한민국 금 5·은 8·동 4 ... 역대 최다 메달 종합 7위 남북 공동입장·김여정 참석·여결링 인기 ... 화제 만발

#### 평창 올림픽 기사 2·3·18·19·20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 세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25일 오후 8시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감동과 환희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주제로 지난 9일 개막한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인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해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15개 전 종목에 역대 최다인 146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뜨거운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대회 마지막날인 25일 대한민국 선수단은 여자컬링과 봅슬레이 남자 4인승 경기에서 각각 은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종합순위 7위를 달성했다.

처음 계획했던 금메달 8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나 총 17개 메달을 획득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최다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윤성빈이 스킨레톤에서 아시아 썰매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메달밭인 쇼트트랙은 남자 1500m(임효준), 여자 1500m(최민정), 여자 3000m 계주에서 값진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타트에서는 이승훈이 금메달을,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 나선 이상호와 ‘왕따 논란’을 일으켰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타트의 김보름이 은메달 1개씩을 추가해내는 등 불굴의 투혼으로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태극전사들의 활약을 증명하듯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흥행과 기록에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와일드카드(특별출전권)를 받은 북한의 선수 46명이 극적으로 참가하면서 명맥이 끊겼던 국제 대회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이 11년 만에 성사됐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 선수단은 참가국 중 마지막인 91번째로 입장했고, 개막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여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까지 참석해 스포츠를 통한 화해라는 ‘평화 올림픽’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의 참가의사로 올림픽이 국제적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최종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노르웨이	14	14	11	39
2	독일	14	10	7	31
3	캐나다	11	8	10	29
4	미국	9	8	6	23
5	네덜란드	8	6	6	20
6	스웨덴	7	6	1	14
7	대한민국	5	8	4	17
8	스위스	5	6	4	15
9	프랑스	5	4	6	15
10	오스트리아	5	3	6	14

\*OAR :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자료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입장권 판매에서도 호조를 보여 판매 목표치(106만8000장) 대비 100.2%가 발매됐다.

빙상 종목에서는 우수한 빙질 등으로 세계 신기록 1개, 올림픽 신기록 12개가 쏟아졌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6개, 쇼트트랙에서 6개의 올림픽 신기록이 나왔고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3개의 ISU(국제빙상연맹) 최고기록이 나오는 등 풍성한 기록 사냥 대회로 남게 됐다.

또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와 로봇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선보여 ‘스마트 올림픽’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아울러 남북 분단 상황에서도 테러 없는 최고의 ‘안전 올림픽’과 철저한 도핑 검사로 어느 대회보다 약물 없는 ‘클린올림픽’으로 치러졌다.

이와 함께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린 개막공연에 이어 대회 기간 일일 최대 80회를 포함한 총 1200여 회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 올림픽’으로 호평을 받았다.

먹거리도 대회기간 동안 우수농산물인증, HACCP, 이력추적제 등 각종 정부인증제도를 활용해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했다. 특히, 선수촌에는 180여명의 전문 요리사가 매 식마다 한식, 월드, 아시안, 할랄, 국수 등 총 6가지 테마로 400여가지 음식을 제공해 선수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민주 광주시장 과열 경쟁에 조기 경선·전략공천 검토

### 출마예정자 충돌·갈등 법정 비화 ... 지도부, 실무적 논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 사이에서 과열 경쟁이 벌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기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출마예정자들 간 충돌과 갈등이 단순한 신경전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할까 가능하면 빨리 경선을 치러 당내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후선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후보 간의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일부 지역의 시·도당위원장이 빨리 경선을 치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일정율) 당긴다면 최대한 얼마나 당길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기 경선 대상지역으로 우선 거론되는 곳은 광주시와 충남도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광주시장 당원명부 유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이 전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출마를 격려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해 비판에 나서면서 후보들 간 분란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충남지사 경선에서는 한 출마예정자 측 관계자가 출판기념회에 버스를 동원해 사람을 실어나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후보군이 거의 드러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서둘러 경선을 치르고 본선 대비모드로 조기 전환하자”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은 “시도당 위원장들의 경우 최고위원을 겸하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전에 지역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면서 “출마예정자들이 가시화된 지역에서는 모두 경선을 앞당기자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가장 빨리 경선을 치른다고 해도 4월 초순은 돼야 가능하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선거인단 참여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실적이 필요한데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권리당원의 입당 시기 기준이 지난해 9월 말이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신규입당한 뒤 6개월이 도래하는 3월31일까지 권리당원 명부를 확정하고 이를 고지한 뒤 이의신청을 받는다”며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가장 빠른 경선은 4월 첫째 주 후반이나 둘째 주 초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열리는 지방선거기 확대 회의에서 조기 경선을 포함한 경선 일정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중당은 이번 주 열리는 지방선거기 확대 회의에서 조기 경선을 포함한 경선 일정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운명의 날’...법정관리 가나

### 오늘 노사 최후의 교섭

금호타이어가 26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최악의 경우 ‘부도’와 ‘법정관리’에 돌입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게 지역 경제계 분석이다. <관련기사14면>

2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3일 특별결의문을 내고 “삼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6일까지 노사 합의로 체결, 제출해야 하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약정서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조3000억 원의 차입금 만기 1년

연장과 이자를 인화 등을 제시하면서 26일까지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를 노사 합의로 체결할 것을 조건에 포함했다. 기한 내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입금 연장 등 유동성 대책을 소급해 무효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채권단 방침이다. 결국 약정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채권단이 1년간 상환 연장을 준 차입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최악의 경우 ‘부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26일 오전 10시 최후의 교섭을 갖고 최종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계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ERA**

중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